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정보라 작가

14일 신태인서 초청 강연

부커상 후보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소설가 정보라가 정읍을 찾아 시민들과 문학 속 환상의 세계를 나눈다.

정읍시는 ‘저주토크’의 저자이자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소설가 정보라 작가가 오는 14일 오후, 신태인도서관에서 강연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청 강연은 한국 신화와 접속 속 ‘몽’을 주제로, 전통과 상상이 만나 이루어지는 환상 문학의 세계를 시민들과 함께 탐색할 예정이다.

정보라 작가는 연세에서 인문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러시아동유럽지역학 석사 과정을 인디애나대학교에서는 슬라브문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2014년 ‘씨앗’으로 SF어워드 중년편 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22년 ‘저주토크’로 세계적 권위의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며 전 세계 문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까지 잔류농약 검사

정읍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유통단계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하며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나섰다.

시는 현재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연간 약 1300건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해 왔지만, 유통 중 외부 환경이나 부주의에 따른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검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상추, 블루베리, 갯잎, 양파, 고추, 대파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총 463종의 살충제·제초제 등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그린바이오 중심지로 도약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사업설 명화... 산업화 · 고도화 박차

정읍시가 미래 산업의 한 축인 미생물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기 위해 공유인프라 기반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전국 60여개 기업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아파트형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미생물산업 관련 기업체 60여 곳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서는 ‘첨단분석시스템 → GMP 생산동 → 공유인프라’로 이어지는 시설 구축의 진행 현황과 장비 배치 계획, 기업 입주 절차, 지원정책 등

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을 시찰하며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0여원이 투입된다. 신정동 1508-1 일원에 연면적 8546㎡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형 스마트 공장은 미생물산업 기업의 연구·생산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3년 2월, 미생물분야 전국 유일의 그린바이오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앞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여원을 투입해 GMP 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을 구축, 미생물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총 99여원을 들여 자동화·고속화·표준화된 바이오파운드리 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들을 연계해 총 40실의 기업 입주 공간과 액상·고상 미생물 제품화 시스템을 갖춘 공동활용 시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저장·유통·상용화까지 미생물산업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4일간)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구조 이송을 신속히 수행하며 해양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해양재난 상황 속 신속 대응

부안해경, 주말 · 휴일 4일간 3건의 응급환자구조 수행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4일간)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구조 이송을 신속히 수행하며 해양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첫 번째 구조는 7일 오전, 부안군 위도면 대리 동철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 중이던 50대 남성이 발목 골절부상을 입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안해경은 갯바위 접근성이 유리한 해양재난구조대 선박을 투입, 환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뒤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8일에는 위도 내리막길에서 머리를 부딪혀 이마에 열상과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환자는 저체온증과 함께 응급

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격포항으로 신속히 이송, 응급처치했다.

9일 오후에는 위도 공사구간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노년 부부가 낙상하는 사고 발생으로 운전자는 뺨에 찰과상을, 동승자는 얼굴 골절이 의심되는 중상을 입어 부안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두 사람 모두를 격포항으로 이송,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생덕 서장은 “지리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에서는 신속한 해상 이송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24시간 긴급상황에 대비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보건소,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동남아시아 등서 치사율 최대 75%에 달하는 니파바이러스 등 발생... 위생관리 철저 강조

고창군 보건당국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군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와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하는 니파바이러스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염 지역 방문 시 야생 과일박쥐같은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기매개 감염병인 뎅기열과 말라리아도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야외 활동 시 모

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설명했다.

말라리아의 경우 해외여행 시작 2주 전에 의료기관에서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해외여행을 마친 뒤에도 4주간 예방약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여행전 방문국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은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NOW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구토, 설사, 기침,

숨 가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560-8664)에 신고해야 한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여행 전 방문국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최소 2주 전에 완료해야 한다”며 “여행 중에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모기 회피 등 예방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군민들의 주의를 필요요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5 고창갯벌축제, 13~15일 심원면 만들갯벌서 개최

고창군이 오는 13~15일 심원면 만들갯벌에서 ‘세계가 인정한 갯벌, 고창에서 즐기자’를 주제로 2025 고창갯벌축제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청정 고창갯벌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축제는 400여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했으며, ‘갯벌지킴이 건강걷기’, 바람공원 힐링요가, ‘갯벌 K-POP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축제에는 바지락과 동죽을 캐는 ‘갯벌체험 활동’과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풍천장어를 맨손으로 잡는 ‘비팔미팔 풍천장어 맨손잡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우튀김, 꼬막무침, 꼬막

비빔밥 등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수산물 특화 먹거리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며, 고창갯벌 홍보관에서는 갯벌의 생태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가 진행된다.

갯벌의 신비로움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2025 고창갯벌축제는 여름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충 고창갯벌축제추진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만들갯벌축제장에서 청정 해안과 친환경 먹거리를 마음껏 느끼며 즐거운 체험, 신나는 추억을 담아가실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집중안전점검 결과 보고 회의 개최

부안군은 최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군수, 부군수, 국장, 관련 실무부서장 등 총 17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된 집중안전점검의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총 108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43일간 실시되었으며,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사·공단, 시민단체 등 총 557명이 참여하여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안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78%에 해당하는 84개소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 시정, 보수·보강,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군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안소방서, 부안해양경찰서, 군산지

방해양수산청 등 공공기관 7곳과 민간 기관 및 단체 총 34곳과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안전점검표 11,000부를 각 세대에 배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로 주요 점검 내용과 조치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숙박시설, 전통시장, 공동주택, 공장시설, 국가유산 및 사할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에서 발견된 안전 취약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적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집중안전점검 시설에는 공공시설 34개소, 민간시설 74개소에 지적 사항이 나오며 부안군민들도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